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법이 서로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느 한쪽을 불가피하게 선택하고 결과를 수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운명을 좌우하는 결단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그리스의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가 쓴 '안티고네'라는 작품이다.

안티고네는 그리스 비극 중 가장 비극적인 주인공인 테베의 왕 오이디푸스의 큰딸이다. 오이디푸스 왕은 자신이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끔찍한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해서 스스로 두 눈을 찌른 후 나라 밖으로 떠난다. 이때 아버지를 따라나선 두 딸이 안티고네와 이스메네다. 오이디푸스가 통치하던 나라는 쌍둥이 아들 둘이서 교대로 왕위를 잇기로 하지만 왕권 투쟁을 벌이다가 서로를 죽이고, 외삼촌 크레온이 새로운 왕이 된다.

안티고네는 왜 그랬을까

이때 오이디푸스 왕이 죽고 두 딸은 외삼촌이 왕인 테베로 돌아온다. 안티고네와 이스메네는 크레온이 내린 명령을 듣고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할 처지다.

크레온은 오이디푸스 왕권을 물려받은 두 조카들이 죽자 자신과 뜻을 같이한 조카에게는 장례식을 허락하지만 다른 조카에게는 장례는커녕 최소한의 예도마저 금한다. 나라를 배신한 반역자라는 이유에서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 '돌로 쳐서' 죽여도 좋다고까지 말한다.

하지만 안티고네는 오빠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서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할 수는 없다고 나선다. 그러나 동생 이스메네에게 어떻게든 오빠의 장례를 지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스메네는 왕의 명령은 곧 법이고 법을 거스르는 것은 통치자의 권력에 맞서는 것이라면서 반대한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비참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의 지배'에 순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살기 위해서는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동생과 법이라고 해도 그 옳고 그름을 따져 봐야 할 뿐만 아니라 그저 목숨을

위해서 복종하는 것은 비열하다는 언니. 이 두 자매가 보여 주는 법에 대한 갈등은 수천 년 동안 되풀이되었고 또 앞으로 그럴 것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사실 법의 선택이 아니고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이다. 그런데 안티고네는 왜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오빠의 장례를 고집하는가?

안티고네는 율음의 길이 굴종의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항변한다. 안티고네는 '옳은 일을 하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아름답구나?' 라고 역설한다. 왕이 내린 명령과 법은 인간의 법일 뿐이기 때문에 이보다 내면의 양심이 지시하는 것에 따르는 것이 정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안티고네는 단언한다. 안티고네에게 죽은 오빠의 장례는 단순히 가족만의 일이 아니다. 죽은 자를 마땅히 장례 지내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 윤리의 불문율을 지키는 것이다.

왕과 그 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는 안티고네의 태도는 현실에서 권력의 힘으로 세운 인간의 법에 대한 비판이다. 보편적인 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것이며, 세상의 어느 법보다 더 중하다고 안티고네는 말한다. 이런 이유에서

장례를 감행한 죄로 붙잡혀 온 안티고네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게 인정하며 왕의 법은, 신이 내린 법도 정의의 여신이 만든 법도 아니고, '한낱 인간에 불과한' 자의 명령인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나고 따진다.

안티고네가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모순의 법, 이 법이 강요하는 삶의 비루함과 자기부정이다. 그래서 왕의 법이 정의의 법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의란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또는 어떤 집단을 위한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율타리가 없는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크레온의 법은 요즘 한참 회자되는 말로 '선택적 정의' 즉 정의의 사유화인 셈이다. 특정한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적 정의는 크레온의 법이 보여 주듯 배타적이고 기만적인 자기의식에서 뻗어 나와서 진정한 정의를 막아서는 '가면 쓴 정의' 일 뿐이다. 안티고네가 인간의 법 대신 보편적인 정의의 법을 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보편적 법 선택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의도가 교묘하게 위장된 세상의 소리가 시끄러울수록 밝은 귀로 내면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다.

꿈꾸는 2040

정치인에게 부끄러움이란 없는 것인가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시사평론가

'618개' (2017년 기준). 고용정보원이 밝힌 대한민국의 직업군이다. 이중 연봉이 가장 높은 1위는 국회의원으로 1억 4000만원이다. 반면 그들이 속해 있는 집단인 국회의 기관 신뢰도는 2.3%라는 결과가 나왔다. 신뢰도는 '믿지 않는다'와 '지탄을 받는다'의 합계다.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셈이다. 그것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말이다.

국민들이 국회를 가장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 원인들이 존재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국회의 연봉을 받고 갖은 특권을 누리면서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회 본연의 임무인 법률 통과를 위한 입법 활동을 게을리하고(20대 국회 법안 발

의는 2만 건, 통과 건수는 27%이다) 정부 정책을 감시 견제하기 보다는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 기능의 상당 부분이 행정부에 위임되고 입법부인 국회보다 행정부 법안 발의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1948년 국회가 출범한 이래 70년이 지났지만 의사 진행이나 원내 토의, 사회적 갈등 해결 방식은 60년대 국회보다 못하다는 게 정치학자들의 견해다. 더구나 한 해 500조 원 가까이 되는 예산안 심사를 미국처럼 일년 내내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15일 만에 졸속 처리하고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에도 드러난다. 80년대 중반인 12대 총선 당시 투표율은 85%에 달했지만 그로부터 20년 뒤인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46%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 추세는 단순히 그해의 투표 결과가 아니라 80년대 이후 꾸준히 투표율이 떨어져 급기야 20년이 지난 뒤에는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투표율 저하는 곧 국민들이 국회의원

을 바라보는 기대치가 사라졌다는 의미이며 정치에 대한 냉소와 불신이 심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한마디로 선거철이 다가오면 출마하는 후보 진영의 지지자들만의 축제의 장이 되고 그중에 약간 명만 더 보태진 선거 결과로 국민 대표권이 주어진다. 정치인들은 틈만 나면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수 소수의 지지율로 당선된 의원들이 과연 국민 대표권을 행사하는 게 맞느냐는 근원적인 절차적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2019년 올 한 해만 보더라도 국회의 거의 열리지 않았고 일을 하지 않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보니 본회의 기준으로 1~2월 두달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3월은 아홉 번, 4월은 한번, 5월 역시 0이다. 6월부터 9월 현재까지 총 10번 열렸다. 9개월 동안 총 20번의 본회의가 열렸다는 것이다. 지난해 2018년 이맘때인 9월까지의 총 26번, 2015년에는 38번이 열렸다.

중간에 인사 청문회와 각 상임위별 활동들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618개 직업

군 국회의원만큼 적게 일하고 대우받으며 권력을 행사하는 직업도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더구나 국회에서 9월부터 12월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정기국회 기간이다. 농사철로 말하면 수확의 계절로 집안의 강아지까지 나서 일손을 도와야 할 만큼 바쁜 철이다. 국회의 꽃이라는 국정 감사에서 법안 통과 예산안 심사까지 행정부 공무원들의 국회 출입이 가장 잦은 달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여야의 대립으로 문을 닫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행정부 공무원들은 국회 문턱에서 서성거리고 있고 산적한 민생 현안은 뒷전에 밀려있다.

국민들은 족족했다고 아우성인데도 불구하고 제1 야당 대표는 법무부장관 물러나라고 삭발을 하고 거리 투쟁을 선언했다. 정부 조직 18개 부처 중 하나인 일개 법무부장관 자리하나가 국회를 닫을 만큼 그들에게는 절박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빌미로 내년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쇼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국회 신뢰도 2.3%'를 기억한다면 삭발 대신 부끄러움에 몸을 떨어야 할 것이다.

기고

배롱나무 꽃그늘에서의 독서 -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를 기억하며



정범중
소설가

나는 예전에 이사를 자주 했는데 이런 광경을 원했다.

이사를 한다. 트럭은 두 대이다. 뒤의 트럭에는 잡다한 이삿짐이 실려 있다. 앞의 트럭에는 딱 한 가지만 실는다. 그것은 책이다. 책을 실은 트럭이 이사 갈 때 선두에 간다. 우리 가족은 이삿한 집에 다 맨 처음 책을 옮겨 놓을 것이다.

젊은 시절에 나는 광주에서 살면서 아내와 함께 집을 마련하기까지 여러 번 이사했다. 그때마다 트럭 한 대에는 책만 싣고 가고 싶었다. 작은 트럭이 아니라 8톤 정도 되는 대형 트럭이다. 그런데 내 책이 대형 트럭 한 대 분이 되지 않았다. 책이 수천 권에 이르렀지만 이 정도로는 1톤 트럭에도 실어 두었다.

중년에 이르러서도 광주에 살았는데, 많은 이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자주 들먹였다. 실제 만났다는 이들도 드물지 않

은 있었지만 묘에는 가본 적이 없었다.

당장 동작동 국립현충원으로 갔다. 정치가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회관을 들고 왔고, 그래서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는 맨 앞의 현충탑은 한산했다. 이렇게 한산해도 되나, 하는 맘이 들 정도로. 나는 현충탑 앞에서 분향을 하고 묵념도 했다. 그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 묘소로 향했다.

서울의 국립현충원에는 대통령의 묘가 넷 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의 묘와 다른 세 대통령의 묘는 다르다. 다른 세 명은 묘 앞에 직선으로 길이 나 있고 그 끝에 층계가 있다. 그러니까 참배객은 직선으로 된 길을 가다가 계단을 타고 오르는 것이다. 한마디로 세 묘는 권위적이다. 김대중 대통령 묘는 언덕 비슷한 데에 자리하고 있는데 앞-좌측에서 그 묘로 가는 길이 나 있다. 묘를 정면으로 보고 다가가는 게 아니라 옆길을 따라가다 보면 묘에 이른다. 권위적이지 않다.

나는 그 묘역에서 김대중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회호 여사를 떠올렸다. 민주화 투쟁을 할 때 이회호 여사는 뱀 머리로 지냈다. 당시에는 '파마머리'라고 했는데 한국 어느 아줌마의 흔해 빠진 머리 스타일이었다. 그런 스타일로 이회호 여사가 머리를 한 이유는 그게 별로 손질하

지 않아도 되기에 그랬다고 들었다. 역시나 권위적이지 않다.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호 여사를 생각하며 묘역을 둘러보니 배롱나무가 있었다. 꽃을 피우고 있었다. 반가웠다. 나만이 아니라 전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배롱나무를 반가워하리라. 여름에 전라도 곳곳에서 꽃을 피우는 게 이 나무이니까.

한여름의 피약함을 견디어내며 가을 결실까지 계속 피는 이 꽃을 보면 불굴의 의지로 살아간 전라도 사람들을 떠올리게 된다.

나는 배롱나무를 어루만졌다. 나무는 내 키보다 조금 더 커서 권위적이지 않았다. 꽃은 붉어서 불굴의 의지를 내기 떠올리게 부족하지 않았다.

올해 이회호 여사는 김대중 대통령 옆으로 갔다. 그 묘역에 지금 배롱나무꽃이 피어 있으리라. 나는 요즘 여행을 가끔 하는데 이런 광경을 원한다. 여행을 떠난다. 가족이 가는 여행이다. 우리의 배낭에는 책이 들어 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딱 한 가지 꽃이 피어 있다. 그것은 배롱나무꽃이다. 남도의 이 꽃이 여행하는 우리의 앞길을 밝힌다. 우리 가족은 배롱나무 꽃그늘에서 책을 읽을 것이다.

지 않아도 되기에 그랬다고 들었다. 역시나 권위적이지 않다.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호 여사를 생각하며 묘역을 둘러보니 배롱나무가 있었다. 꽃을 피우고 있었다. 반가웠다.

나만이 아니라 전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배롱나무를 반가워하리라. 여름에 전라도 곳곳에서 꽃을 피우는 게 이 나무이니까.

한여름의 피약함을 견디어내며 가을 결실까지 계속 피는 이 꽃을 보면 불굴의 의지로 살아간 전라도 사람들을 떠올리게 된다.

나는 배롱나무를 어루만졌다. 나무는 내 키보다 조금 더 커서 권위적이지 않았다. 꽃은 붉어서 불굴의 의지를 내기 떠올리게 부족하지 않았다.

社說

지역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절실하다

정부 인증을 받은 광주·전남 지역 소재·부품 산업 분야 전문 기업이 전국의 1.2%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에 나섰지만 지역 기업들에겐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현재 소재·부품 분야 정부 인증을 받은 전문 기업은 전국적으로 4699곳이다. 권역별로는 영남권이 2324곳으로 49.5%를, 수도권은 1956곳으로 41.6%를 차지했다. 전체의 91.1%가 영남권과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이다. 이어 충청권 이 6.9%였다.

호남권의 경우 광주는 39곳, 전남은 17곳으로 전국 비중이 각각 0.8%와 0.4%에 불과했다. 전북 34곳(0.7%)을 합쳐도 1.9%에 그쳤다. 산업부는 '소재·부품 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 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을 전문 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는 인력·금융·기술 개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전체 소재·부품 관련 기업(2만 5869곳)으로 범위를 넓혀도 광주는 2.4%(610곳), 전남은 1.8%(465곳)에 그쳤다. 더욱이 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은 지역 내 관련 산업 실태조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향후 3년간 5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 기업들은 취약한 산업 기반 탓에 지원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소재·부품 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경쟁력의 핵심 요소다. 지자체와 중소기업 지원 기관들은 관련 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장기 미제 사건 관련 경찰청의 '이상한 지침'

33년간 드러나지 않았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경찰이 찾아낸 이후 다른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용봉동 여대생 알몸 테이프 피살 사건(2004년 9월 14일)과 나주 지식강 40대 여성 숙우 변사체 사건(2008년 9월)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몇 개 있다.

한데 최근 경찰청은 이해하기 힘든 지침을 전국 지방 경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한다. "언론에 장기 미제 사건은 건수 외엔 일체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사건 해결에 대한 경찰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처럼 미제 사건 해결에는 제보 한 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데 오히려 경찰청이 직접 나서 미제 사건을 숨기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는가. 경찰청 미제 사건 담당자는 광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강력 미제 사건의 경우 언론 보도가 나오면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미제 사건 공개거부 이유를 밝혔다니 참 어이가 없는 일이다. 수십 년간 피의자를 밝혀내지 못한 마당에 무슨 피의자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광주·전남 경찰청의 미제 사건 전담 인력이 각각 3명씩에 불과해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해던 미제 사건이 지방청의 전담팀으로 넘어가는 데 5년이나 걸리는 것도 문제다. 사건 발생 후 5년이 경과해야만 사건 기록과 증거물이 전담팀으로 넘어가는 탓에 증거 훼손 등으로 사건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다.

2000년 이후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강력 미제 사건은 총 18건(광주 11건, 전남 7건)이나 된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이들 미제 사건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죄 짓고 는 숨을 데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각인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세상은 복잡하다.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르다'로 일도양단하기가 쉽지 않다. 동전처럼 서로 다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가 하면, 양파처럼 까도 까도 속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도의 유서 깊은 종교자이나교에서는 '인간은 그 누구든 결코 사물의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래서 '사물을 보는 다양한 방식과 실재를 경험하는 다양한 모습을 모두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네칸타바다' 즉 비절대주의의(非絶對主義) 원칙으로 불리는 이 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자이나교에서는 코끼리

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시끄럽다. 각종 매체를 통해 걸러지고 왜곡된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는 국민으로서선 진상 파악에 필요한 정확하고도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견을 가진 여섯 맹인의 이야기는 '자신의 판단이 맞다'고 고집하며 상대를 공격하는 대신 스승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이야기에 나오는 여섯 맹인들이 '자신이 보는 것이 전체 그림'이라거나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스승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

여섯 맹인

한 마리를 손으로 더듬어 묘사한 여섯 맹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맹인들은 '코끼리가 가동 같다(다리), 밧줄 같다(꼬리), 부채 같다(귀), 벽 같다(배), 파이프 같다(상아), 나뭇가지 같다(코)'라며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다. 잘 알려진 대로 스승은 "다 옳은 이야기지만, 모두 전체가 아니라 한 부분만 파악했다"고 조언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했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이슈에는 불가피하게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마련이다.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논란은 어느 방향이든 대단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더 이상의 분열은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루빨리 논란이 마무리되어 국내외 산적한 현안에 국론이 집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동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 화 부 220-0661	문 화 부 220-0661	문화사업국	220-0541
문 화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32	(FAX 222-8005)	(FAX 222-0195)
문 화 부 220-0663	문 화 부 220-0663	기획관리국	227-9600
문 화 부 220-0664	문 화 부 220-0664	업 무 국	220-0551
문 화 부 220-0652	문 화 부 220-0652	(FAX 222-0195)	(FAX 222-0195)
문 화 부 220-0642	문 화 부 220-064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